

가고자 하는 곳이라면 반드시 도착하게 되어있다

- 이름 : 김시연
- 근무기구 및 부서 : UNCTAD 뉴욕사무소
- 직위 : 인턴
- 지원 경로 : UN 채용 웹사이트에서 직접 지원
- 근무 기간 : 2016.08.15.~2017.01.16.

- 콘크리트 빌딩 정글 속을 헤치며 이어지는 나의 여정 -

들어가면서: 지도 없이 출발하는 여행

우리 앞에는 여러 갈래로 펼쳐진 길들이 있다. 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문제는 이 길들이 정확히 어디로 향하는지는 아무도 확실하게 알지 못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목표가 어디 있는지 파악하고 그 쪽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목적지를 뚜렷하게 정한 후 출발하면 그곳에 가까워질 것이며, 만약 멀어지더라도 다시 바로 잡고 갈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목적지가 불분명하거나 아예 없다면 수많은 길들 사이에서 길을 잃고 방향할 수밖에 없다.

나는 목적지를 정하고 선택한 길을 따라가는 과정 자체가 인생이라고 생각한다. 국제기구에서 인턴으로 일한 경험도 긴 여정 중 하나의 구간일 뿐이라고 여긴다. 따라서 UN에서 이런저런 활동을 했다고 단순 나열하기보다는 내가 어떤 고민을 하다가 여기에 왔는지, 국제기구에서 어떤 것을 배우고 느꼈는지, 그리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지를 위주로 나누고자 한다.

1. 목적지 정하기

초등학생 때 베트남 자매결연 학교에 방문하는 프로그램에 참가했었다. 현지학생들과의 교류 행사에서 짝꿍이었던 베트남 학생이 뜬금없이 서툰 영어로 ‘너, 부자 나라’ 라고 하는 것이었다. 그 당시 선생님이 우리나라는 아직 선진국이 아니라고 말씀했던 기억이 나서 아니라고 했는데 그 친구는 자꾸 ‘예스, 예스’ 라고 했다. 조금 황당했던 그 사건 뒤로 나는 부자나라의 기준이 뭘까 라는 질문을 가졌다.

한 국가를 선진국으로 분류하는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우리나라는 GDP 규모로는 2015년 세계 11위에 올랐으며 G77에서 탈퇴하고 OECD에 가입할 만큼 국제적으로도 선진국의 지위를 인정받는 분위기이다. 하지만 정작 아직 한국 사람들은 국가 지위에 대해 박한 편이다. 소득불균형이 심하고 사회복지 정책이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했다.

따라서 ‘공정한 경제발전정책으로 평등한 사회’를 구현하고 싶다는 목적지를 정하고 대학원에 진학하기로 결심했다. 내가 선택한 석사과정은 실무자 양성을 목표로 하는 과정이기에 논문보다는 인턴십이 더 도움 될 것이라는 조언에 따라 경제 관련 국제기구를 경험해보기로 마음을 정했다.

1.1 지원 경로

나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인맥이 없었기 때문에 공식 루트를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UN 채용 공고 사이트인 UN Careers에서 공고를 보고 UN 인적자원 시스템인 inspira를 통해 직접 지원했다. Personal History Profile에 인적 사항, 학력, 경력 등을 입력하고 커버레터, 추천서 등을 첨부하면 된다. 3월 말에 올라온 공고를 보고 4월 중순에 지원서를 제출했으며, 6월 초에 인터뷰를 진행하여 약 일주일 뒤에 최종 합격 연락을 받았다.

처음에 지원하기로 마음먹었을 때 막연한 두려움이 몰려왔다. 전 세계의 똑똑하고 야망 있는 학생들 사이에서 경쟁해서 내가 이길 수 있을까? 학교 학생들 사이에서는 인맥이 없으면 들어가기 힘들다는 국제기구 인턴 괴담이 돌기도 했다. 언제 연락이 올지, 아예 연락조차 오지 않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며칠, 몇 주, 몇 달을 기다리는 게 무척 힘들었다. 따라서 나는 지원할까말까 주저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한다. 이때 마음가짐을 건강하게 유지했던 게 도움이 되었다. 내가 추구하는 학업 혹은 경력 계획과 지원한 인턴십이 같은 곳을 향하고 있다는 확신, 이 분야에 있어서는 다른 경쟁자들에게 뒤쳐질게 전혀 없다는 자기 확신, 그리고 제의가 오지 않아도 낙담하지 않고 다시 도전하는 회복력 이 세 가지가 나를 끝까지 지탱해주었다.

나중에 슈퍼바이저께 들은 바로는, 내 커버레터에 자신들이 찾던 키워드들이 들어가 있었고, 이력도 기구가 하는 일과 방향이 맞아서 인터뷰를 제안했다고 한다. 다만 이력서에 경력을 서술할 때 채용자들이 볼렛 포인트(bullet point)를 사용한 목록 형식보다 글로 풀어서 서술하는 형식을 선호한다는 조언을 듣기는 했다. 또, 인터뷰 때는 목소리에 에너지가 실려 있고 주제-부연설명 식으로 답변을 해서 자기 의사를 뚜렷하게 전달할 줄 안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했다.

1.2 기구 소개

UNCTAD는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의 약자로 (한국말로로는 ‘윌크타드’라고 읽거나 유엔 무역 개발 회의라고 부른다) 경제개발관련 UN 직속 전문기구이다. 주요 과제는 공정한 세계화를 이루어 개발도상국들이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돕는 것이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무역 불균형을 완화하는 것을 주목표로 출범했으며, 부채 관리, 투자 진

흥, 경제 다각화 등으로 전문 영역을 넓혀 현재는 전자 상거래, 기술 혁신,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다. UNCTAD의 전문성은 경제정책의 운용을 지원하는 데에 있다. 경제정책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토대로 국제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며, 개발도상국들이 이를 시행할 수 있게끔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유네스코나 유니세프 등에 비해 다소 생소한 기구일 테지만 거시경제나 경제발전에 관심 있다면 꼭 알아두어야 할 기구이다. 본부는 제네바에 위치해 있고 아디스아바바에 지역사무소를, 뉴욕에는 연락사무소를 두고 있다.

연락사무소는 직원 4명과 인턴 3명으로 구성된 작은 사무소이지만 제네바 UNCTAD 본부와 뉴욕 UN 본부, 회원국 대표부 사이를 연결하는 중요한 고리 역할을 한다. 주요 업무는 뉴욕에서 진행되는 정부간(intergovernmental) 회의나 기관 간(interagency) 회의 혹은 외부행사에 참석하여 내용을 본부에 보고하는 일이다. 반대로 제네바에서 출간한 정책보고서를 뉴욕에 있는 각국 대표부에게 홍보하는 일도 한다.

2. 첫 번째 일정: 뉴욕 UN 본부와 친해지기

뉴욕 맨해튼 미드타운의 가장 동쪽 이스트 강을 배경으로 높게 서있는 38층짜리 오래된 건물, 강물 위에 반사되어 반짝이는 눈부신 햇빛, 나란히 서서 바람에 펄럭이고 있는 193개의 깃발. 한 여름날 아침 처음 출근하면서 UN 본부 건물에게 받은 인상은 사진에서 보던 그대로였다. 내 사진이 찍혀있는 출입증을 가지고 사무국 회의실에 들어가니 신기하기도 했다. 아마 첫 출근하는 날 UN 직원/인턴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기분일 것이다. 첫 일주일간 사무국 건물에서 자꾸만 길을 잃고 헤맨 덕분에 회의장, 구내식당, 우체국, 도서관 등 각종 시설을 빠른 기간 안에 섭렵했다(심지어 지하창고로 잘못 들어갔다가 경호원에게 구출 받은 적도 있었다). 날마다 보는 풍경인데다 치열한 업무 속에서 파묻혀 돌아다니다보니 예전만큼의 감흥은 사라졌지만, 뉴욕에서 집 다음으로 오랜 시간을 보낸 건물이어서 그런지 이제는 오히려 편한 곳이다.

3. 이후 3개월간의 일정: 제 71회 UN 정기총회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세상을 바꾸는 공통의 노력(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 universal push to transform our world)”이라는 주제로 2016년 제 71회 UN 정기총회가 소집되었다.

3.1 알리바바의 마윈, UNCTAD 특별고문 임명

정기총회 주간에 알리바바 회장 마윈이 UNCTAD의 청년·중소기업 특별고문으로 임명되어 리셉션을 기획하게 되었다. 무키사 키투이 UNCTAD 사무총장뿐만 아니라 김용 세계은행 총재, 로베르토 아제베도 WTO 사무총장 등도 참

석해 전자상거래를 통해 청년 기업가 정신을 고취하고 중소기업을 진흥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무엇보다 기억에 남는 장면은 질의응답 시간에서 나왔다. 자신을 청년 기업가라고 소개한 사람은, 아프리카에서 전자상거래 사업이 발전하지 못한 까닭은 현지인들에게 스마트폰은 사치품이기 때문이라며 알리바바가 나서서 아프리카에 스마트폰을 보급하기를 촉구했다.



특별고문 임명식에서 연설하는 알리바바 마윈 회장

그러자 마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그 청년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자선활동과 기업가 정신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사업은 자선활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창업했을 때 중국에는 아예 인터넷조차 연결되어 있지 않은 동네가 훨씬 많았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사업할 것이라는 아이디어를 들은 가족과 친구들은 저에게 정신 나간 짓이라며 만류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업가 정신을 활용하여 회사를 발전시켰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아프리카는 당시 중국보다 인터넷이 잘 보급되어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전자상거래 산업을 활성화하려면 자선활동을 통해 스마트폰을 보급한 후 사업을 시작하기보다는 기업가들이 스스로 어떻게 스마트폰을 유통할 것이냐에 대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기업가 정신은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3.2 UN 총회 경제·재정위원회(제2위원회)

우리 부서는 총회의 여섯 개 위원회 중에서 경제·재정과 관련된 안건들을 다루는 제2위원회 총회에 참석했다. 제2위원회 총회에는 담비사 모요(Dambisa Moyo) 교수가 기조연설을 맡았다. 모요 교수는 연설의 많은 부분을 암울한 세계 경제 현황을 묘사하는 데 할애하더니, 청중들에게 이제 충분히 걱정스러워졌냐고 농담반 진담반 질문을 던졌다. 그러더니 앞서 열거한 요소들보다 더 걱정되는 것은 국제공공정책에 대한 각국의 대응이라고 했다. 개발도상국들은 세계화를 이루기 위해 민주주의와 시장자본주의를 포용했지만, 최근 선진국들은 그에 반대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국제 환경이 변화한 만큼, 지난 세기에 사용했던 경제 모델을 앞으로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넘겨짚으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의 사회로서 이루고자하는 경제목표가 무엇인지 다시 질문해보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달성하려면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경제·정치적 모델을 새로운 환

경에 맞게 재구성하는 작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었다.

제2위원회 본회 외에도 각 의제에 관련된 결의안을 협상하기 위한 비공식 회담이 진행되었다. 거시경제정책부터 시작해서 환경 문제, 농업 발전, 정보통신 기술, 이주 등 40여 가지의 의제들이 다뤄졌다. 날마다 두 세 개의 비공식 회담을 참관하면서 다자간 협상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지켜보았다. 대부분의 회담은 G77이 작성한 결의안 초안을 가지고 각국이 자기 입장을 피력하면서 수정을 요구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인류 공통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협력하는 동시에 각자 이해관계에 따라 원하는 바를 관철시키기 위해 협상을 벌이는 모습이 연출되었다. 나라마다 다양한 입장이 있었고, 자신의 주장에 힘을 보태기 위해 의견이 비슷한 국가들끼리 연합을 맺기도 하는 등 국제 사회 속 외교력의 역학 관계를 목격할 수 있는 기회였다. 그러나 동시에 참가국들이 많기 때문에 의견을 조율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고, 정해진 기간 안에 수많은 안건을 모두 다루려다보니 비효율적으로 진행된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다.

올해 제2위원회 결의안의 특징적인 사항은 4년마다 UN의 효율성, 영향력 등을 평가하고 변화하는 개발협력 환경에 맞춰 UN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QCPR(Quadrennial Comprehensive Policy Review) 결의안을 협상한다는 점이다. QCPR은 UN 내부 시스템의 운영 방식을 정의하는 정책 기구이기에 여기에서 나눠주는 자료를 읽으면서 UN 개발 기금과 프로그램에 대해 더 깊게 이해하게 되었다. 또한 드라이브 기술을 활용하려는 시도 덕분에 색다른 결의안 작성 방식을 경험할 수 있었다.

불과 한 해 전인 2015년, UN은 우리가 원하는 미래(the future we want)를 구상하고 그에 맞게 지속가능한 개발 17가지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를 정했다. 결의안을 합의는 모요 교수가 앞서 말한 정치·경제 모델을 지속 가능한 개발목표에 맞게 구성하는 작업이다. 인류의 미래가 아파트라면, 현재 새로운 설계도를 바탕으로 재건축 공사가 진행 중인 것이다. 견고한 건물을 지으려면 알맞은 구조재로 뼈대를 안정적으로 세워야 한다. 경제 정책과 사회 제도를 결정짓는 결의안은 건축물의 뼈대이며 결의안을 이루는 언어는 구조재료라고 생각한다.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세계화에 반하는 물결에 편승하면서, UN의 영향력이 약화될 위기에 놓여있다. UN에게 지속가능한 개발목표에 대한 약속을 재차 확인하고 새로운 발전 모델을 제시하는 작업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이다.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까? 보호무역주의와 고립주의로의 흐름을 역전하려면 결의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할까? 비효율적인 협상 방식을 개혁하기 위해 총회는 어떤 방향으로 재활성화(revitalization) 논의를 이끌어가야 할까?

4. 국제기구 인턴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드리는 조언

일개 인턴에게 조언이라는 단어가 거창하기도 하지만, 국제기구 인턴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배우고 느낀 것들을 토대로 몇 가지를 나누고자 한다.

첫째, 자신이 지나온 길을 파악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확실히 정하자.

둘째, 지원하는 포지션이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 혹은 예상 근무기간 중 어떤 프로젝트가 진행될지 사전에 검색해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국제기구 인턴은 대부분 경험하고 배우려는 목적이 크다. 어떤 일을 하고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확실히 안다면 지원서를 쓸 때도 유리하고 나중에 기대했던 것과 다르다고 실망할 확률이 줄어든 것이다.

셋째, 일하고 싶다면 위축되지 말고 일단 지원해보기를 바란다. 지원서를 제출하면 내 이력서가 한번이라도 읽히고 인터뷰하게 될 기회도 생길 수 있지만 지원하지 않으면 그런 가능성이 원천 봉쇄되는 것이다.

넷째, 뉴욕 UN본부는 정치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상기하기 바란다. UN본부는 각국 대표부들이 교류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며, 뉴욕에 위치한 UN기구와 연락사무소들은 대표부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일하는 동안 부서 사람들 외에 가장 많이 접한 사람들도 외교관이었다. 따라서 개발 현장에서 경험을 쌓고 싶거나 연구원을 꿈꾸는 학생들보다도 외교 무대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추천하고 싶다.

5. 나오면서: 다음 여정을 준비하며

아직 인턴십 종료까지 한 달이 남았고 UN 제5위원회 회의 일정이 있지만 미리 다음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고 있다. 먼저 실무경험을 토대로 석사과정 마지막 한 학기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싶다. 공정한 경제발전정책으로 평등한 사회를 만들고 싶다는 큰 주제 아래 무역을 통한 중소기업 또는 개발도상국의 균등한 발전을 관심사로 두고 공부해온 만큼 그와 관련된 기관에서 일하는 것이 내가 희망하는 다음 여정이다. 글 솜씨가 뛰어나지 못해 내가 전달하고 싶은 바를 제대로 담았는지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나중에 국제기구 인턴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만나면 더 많은 경험을 나누고 싶다. /끝/